

## 7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19.7.26.(금) 오후 4시~5시 4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정윤식 위원장, 조영숙 부위원장, 박성용, 김경만, 장유리, 박성복, 백대용, 허찬행, 서창호 위원 등 9인(나지수 위원 서면)

회사 참석 인원 : 심의실장, 시청자센터장 등 2인

### 1. 다음 회의 일정

- 8월 일정 : 8월 30일(금) 오후 4시, 12층 대회의실

### 2. 주요 회의 내용

#### ▲ 박성복 위원

- 현재 연합뉴스TV의 편성을 보면 시간단위로 진행되고 있음. 속보 및 긴급 뉴스, 그리고 대담등의 스페셜 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일반보도 뉴스의 경우, 시간 단위로 같은 뉴스가 진행자를 바꾸어 보도하고 있음.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시간별 뉴스라는 입장에서 보면 크게 나무랄 부분이 없음. 다만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뉴스를 비슷한 영역별로 묶어서 보도하는 것은 어떨까 고민해 봄. 최근 한일 경제보복에 관한 뉴스가 초미의 관심사여서 가장 먼저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것과 같이 핫 아젠다를 보도하고, 그 후론 같은 영역별로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봄. 국내 국제 뉴스가 섞이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뉴스가 섞여서 보도되는 듯 함. 물론 관심도에 따라 분류하면 당연히 영역별 경계가 무의미해지는데, 그렇다고 관심도 순위로 보도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음. 따라서 뉴스 아이템의 보도 우선 순위의 분류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았으면 제안.

-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그로 인한 정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불안감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음. 진행자의 뉴스보도의 자세와 전체 뉴스보도의 방향성을 고민해봐야겠음. 뉴스 진행자의 경우에는 뉴스보도태도는 중립성을 견지하는 것이 좀 더 언론의 기능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여 짐. 가령 뉴스앵커가 "한국의 불매 운동은 얼마가지 못할 것이라는 일본의 비아냥에도 불구하고..."와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의 심정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 최근 불매운동 확산의 단초를 제공한 발언이었기에 진행자의 경우는 "비아냥"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단어 취사선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함. 전체적인 뉴스보도의 방향성은 개인적으로는 선호적인 것을 옹호하는 입장. 한사람의 한국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오랜 역사적 맥락 등을 고려해보면 한국의 언론은 일정한 방향성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의 생각임. 따라서 뉴스진행의 중립성과 뉴스 보도의 선호성을 잘 조화시키는 엄밀함이 필요한 것이 아

닐까 고민해 봄.

▲ 허찬행 위원

-7월 3일, '미투' 이후 달라진 것?...페미니즘 소설집 '새벽의 방문자들' 출간이라는 리포트에서, 여성주의 작가들의 문학작품 출간 소식이라는 주제와 미투 운동 이후 여성주의 작가들의 작품들이 주목 받는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 눈에 띄었음, 여성주의 작가들의 작품 출간 소식을 바탕으로 미투 운동 이후 사회적 의미를 되짚은 것처럼,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에 관심을 갖고 해당 뉴스를 발굴하여 보도하였으면 좋겠음

-7월 3일, 두 여성을 동시에 만나는 사실,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의 가해자 등의 이유로 연예인들이 출연중인 방송에서 하차 했다는 리포트, 해당 연예인들에 대한 사실을 부각하는 것에서 나아가, 왜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하차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좋았음. 최근 관찰 예능이 활성화 되면서 연예인들의 일상적인 모습 또는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해당 연예인들의 이중 연예나 과거 학교 폭력 사실이 밝혀지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한다는 문제를 제기함, 방송에서의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지만 연예인들도 일상에서 방송에서의 이미지와는 상반된 행동을 할 경우 시청자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도덕성 강화라는 의미를 부여한 점이 좋았음. 하지만 언론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빗투' 표현은 연합뉴스TV부터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미투 운동은 사회적 위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침묵을 강요받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인데, 연예인 가족 관련 채무관계는 지극히 사적인 관계에서 이뤄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빗투라 빗대어 표현하면서 미투를 연관 짓게 하는데, 전혀 다른 사안인 만큼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함

-7월 10일 배우 강지환씨가 2명의 여성을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소식과 관련하여, 연합뉴스TV는 초기에는 사건에 초점을 두다가 이후 리포트에서는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사안들을 보도하는 문제가 있었음, 7월10일 (06:46) "경찰, 배우 강지환 긴급 체포...지인 2명 성폭행 혐의" 리포트에서는, 지인2명 성폭행 혐의라는 제목과, 보도 내용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지 않은 점이 좋았음. 가해자인 강씨의 성폭행 사실을 중심으로 다뤘고, 피해자들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으려 신중한 표현과 보도를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지만 8시6분 "배우 강지환 긴급 체포...여성 2명 성폭행 추행 혐의" 리포트에서는 "... 소속사 여직원 2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라는 내용을 통해 피해 여성들이 강씨와 같은 소속사 직원이라는 점을 노출함, 13:00 "배우 강지환, 소속사 직원 성폭행 혐의 체포" 리포트에서는 제목에서 '소속사 직원'이라 표기하고, 보도 내용에서도 "...소속사 여직원 2명..."이라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노출했음, 이후 소속사 직원이 아니라 외주 스태프로 정정되었지만, 한국기자협회의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의 실천요강에 따를 때,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됨. 최초 보도는 피해자를 '지인'이라 표기하면서 신상을 노출하지 않았지만, 이후 소속사 직원으로 언급하여 피해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도록 언급하면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보도가 이뤄짐. 특히, 외주 스태프로 최종 보도하면서, 소속사 직원들 중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음. 왜 그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보도하면서 피해 여성들이 왜 강씨 집에 있었는가를 불가피하게 언급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만큼은 신중하게 보도해야 했음. 지인들 여러 명이 강씨 집에 모여 술자리를 갖고, 교통편이 안 좋아 두 피해여성은 강씨집에 있었다 정도로 보도하는 것이 사건의 실체를 다루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따라서 성폭력 범죄 보도에서 연합뉴스TV가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개선하기 바람

#### ▲ 백대용 위원

- 일본의 경제규제 때문에 경제관련 뉴스 대부분이 약간 휘발성 있는 보도가 대부분이어서 아쉬웠음. 보고나면 지나가버리는 보도가 대부분이었음. 좀더 일반 국민들, 일반 소비자들에 더 깊은 정보의 보도가 되었으면 좋겠음. 예를 들면 최근 일본의 경제규제에 대한 불매운동이 초래될수 있는 문제점 등 심층적인 고민을 하는 제공할수 있는 보도가 되었으면 좋겠음. 이와 병행해서 관련된 깊은 대담프로그램, 뉴스속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심층적인 토론코너를 자주, 그리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음
- 소비자 측면에서 정보제공성 보도가 최근에 많이 약화된 느낌이 든다. 특히, SNS 마케팅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보면 최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SNS마케팅 관련, 지적하거나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

#### ▲ 나지수 위원

- 7.25 보도에서 수원 폭력조직원간에 병원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을 보도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는 손도 쓰지 못한채 지켜볼 뿐입니다"고 보도. 보도시각이 왜곡되어 있는듯(마치 의사와 간호사가 폭행행위 개입의무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듯한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손을 쓴다는 것인지 의문). 환자를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병원 내 폭력 행위는 가중처벌하게 되어있음. 차라리 이런 멘트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생각됨
- 기존에 여러차례 지적된 수화통역자의 공간테두리 마련 아직까지 안됨.
- 7.23 19:20경 기상캐스터는 발음이나 말투가 뉴스진행과 어울리지 않음. 일상 대화에서 대화하는 컨셉인지는 몰라도 말투임. 준비되지 않고, 전달능력이 떨어지는 느낌임
- 신비한 건축기행 위대한유적은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에서 보기 어려운 다큐

멘터리 편성. 흥미롭고 재밌는 내용, 좋은 프로그램도 시청자가 알 수 없어 보지 못한다면 의미가 반감될듯. 다른 채널들은 특이한 프로그램의 방송일자 등을 광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노력이 필요할 듯 보임.

#### ▲ 서창호 위원

- 7/4 고용브리핑 365 “스펙이 머길래” 보도 관련하여 대학졸업자 중 휴학 경험자 비율, 5월 청년 고용률 등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대학생 38% 취업사교육 경험 관련 자료제공 출처를 밝혔으나 사용한 그래픽에 오기(국내를 국제로 기재)가 존재함.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음.
- 7월 BTS 관련 보도가 여러 차례 이루어짐. 젊은 이들이 관심가지는 BTS에 대한 보도는 긍정적이나 특정 그룹에만 편중된 보도는 아쉬움.
- 7/1 검찰 2년새 487명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청구 보도, 7/24 문무일 검찰총장 퇴임 소식을 전하면서 전향적 과거사 정리 ... 과거 검찰 잘못 사과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발표와 달리 최근 납북귀환어부 재심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가 이루어지고 있음. 과거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진지한 반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의 심층 보도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음. 국회에서는 납북귀환 어부 조작사건에 대한 피해구제 관련 토론회가 진행되었는데, 과거사법개정의 필요성,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의 필요성 등 관련 보도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음.
- 7/8 스포츠 뉴스중에 ‘상하이 이적 김신욱 최강희 감독님 부름이 결정적’ 리포트가 경기수, 골 수치를 설명하는 숫자가 우측 하단 수화통역사에 의해 화면을 가려 숫자가 안보여서 시청하기에 답답했음. 그래픽 위치를 바꾸어서 세심하게 진행했다면 좋겠음

#### ▲ 장유리 위원

- 메인 테마를 다룰 때 박스형으로 약간의 효과 넣어서 돌출이 되면서 제목이 색깔이 변화면서 효과가 나오더라. 뉴스가 각인이 되어서 좋았음
- 다큐 풍경이 계절별로 스토리텔링을 엮어 제작해서 좋았음. 이번에는 여름답게 아름다운 이곳저곳 바다를 보게 되어서 좋았고, 6월에는 6·25와 관련된 영상들, 전국 각 곳에 풍경들을 보여줌으로서, 어린 아이에서 어른까지 고장의 명물, 명산의 스토리와 역사를 배울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음

#### ▲ 김경만 위원

- 7.20 [뉴스초점] 또 다시 빈손 국회... 추경 처리 본회의 무산에서는 (좋은 점) 추경안이 92일째(7.26 기준) 표류중이라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연합뉴스TV는 ‘뉴스초점’ 뿐이 아닌 ‘뉴스포커스’, ‘현장연결’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주제 관련 쟁점을 적절한 시점에 보도, 동 보도는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

여야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해야한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던짐. (아쉬운 점)  
약 26분으로 이뤄진 이 방송은 마지막 12분을 황교안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만찬 제의 거절 사건을 시작으로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행보 평가 및 한국당내 입지에 대  
한 논의로 마무리 됨. 본 주제인 '추경'에 보다 집중한 보도가 되었음 하는 아쉬움. 추경안  
미처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밀 분석 보도를 통해 시청자 가 추경안 심사 지연의 심  
각성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도록 역할을 해주기 바람.

- 7월23일 보도 [뉴스포커스] 파국으로 치닫는 한일관계... 경제전쟁 장기화 우려에서는  
국회에서 일본을 가장 잘 안다는 강창일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경제보복의  
배경 및 앞으로 가야할 길을 다룬 것은 시기상으로는 내용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  
였다고 봄. 그러나 '경제전쟁 장기화 우려'라는 제목이 무색하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그동안 우리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  
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심층적으로 다루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 경제 관련  
뉴스가 팩트 전달 위주의 보도보다는 원인과 결과 분석 등이 동행된 기획보도  
형식으로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 아울러, 최근 한일관계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  
中 정치(강제징용배상)문제가 경제·외교문제화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임. 일본보다 상  
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 경제에 반도체 산업을 비롯하여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관련 전문가의 기획 보도를 통해서  
강제징용자 배상에 대한 한일간의 해법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실현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강제징용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이지만, 일본은 안보문제 (한국  
내 전략물자관리 등)을 지적하며 경제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 일본 측의  
주장과 한국 측 주장의 상이점, 이의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다뤘으면  
함. 또한 한국 측은 일본의 수입규제에 대해 WTO 중재를 요구 하고 있고, 반면  
일본 측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 제3국 중재위원회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의견 수렴도 필요한 듯함. 따라서 양국 간의 해법 차이  
점에 대해 대비표를 만들어서 시청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국내 여·야간 진보와 보수 정치 간의 해법 차이는 무엇인  
지? 왜 국내 정치 이해 집단은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다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듯 보임.

#### ▲ 박성용 위원

- 7.12(금) 21:50분경 '뉴스투나잇'에서 NCS 제1차장이 나와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내보냄. 이는 NCS 제1차장이 나와서  
기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보도하고, 현 정부 들어 NCS 제1차장이 처음으로 기자  
실에서 브리핑한다는 2가지 사항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함(당  
시 프로그램은 생방송이 아니었음),
- 7.13(토) 20:20분경 '최저임금, 투표로 결정, 개정안 탄력 받아'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음. 보도내용은 경영계 대표도, 노동계 대표도 모두 회의장 나가고, 결국 투표  
로 결정하였으며, 지금까지 합의로 한 것은 2번뿐이라는 보도와 함께, 개정안이

탄력 받는다는 내용이었음. 그러나 현재는 무엇이 문제인지? 이와 관련하여 개정 안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음

- 7.17(수) 11시경 뉴스에서 서울시 교육감의 자사고 평가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외고 폐지를 공론화하겠다는 내용의 보도를 함. 그러나 당시 서울시 교육감의 전체적인 발표내용은 자사고, 외고 등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한데, 이는 교육부가 할 사항임. 만약 교육부에서 이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폐지 공론화 작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음. 그러나 당시 보도내용에서는 교육부관련내용은 생략한 채 공론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보도자료 작성 필요
- 7.9(화) 모 프로그램에서 민주당 전의원, 세명대 교양학과 교수가 패널로 나왔으며, 세명대 교수는 직전에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패널 중, 현재는 대학교수이나 직전에 국회의원 등 정치집단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현직과 함께 직전 정치경력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대학교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임
- 7.10(수) 23:22분경, "식품광고 허위광고 많아", "전문가 나오는 광고 특히 주의" 등의 보도를 하면서, 화면에 해당상품 관련 브랜드명, 회사명 등은 흐리게 나눔. 소비자는 어떠한 상표를 가진 어떠한 제품이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보도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동 정보는 어디(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정보는 최소한 제공하여야 함
- 타다 관련 보도내용을 공유경제 측면에서 보면 너무 단편적이었으며, 자사고, 외고 폐지문제는 주요뉴스라고 생각함. 심층보도가 필요한 뉴스 기준, 보도 시 주의 사항 점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으나, 관련 보도내용은 매우 적음. 시청자의 관심은 적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은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경제보복이라는 용어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보복은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을 의미함. 우리나라가 일본에 해를 주었는가?, 보복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가?

#### ▲ 조영숙 부위원장

7월의 가장 큰 뉴스는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보도라 할 수 있음. 7월 6일 뉴스 16의 뉴스초점에서 이 내용을 다루었는데 전문적인 패널의 도움으로 시청자로서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질 수 있었음. 즉, "정치적 대응이 아닌 경제적 대응기조 원칙, 기업과의 소통기반 원칙, 대일의존도가 높은 부품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노력 원칙" 3가지의 정부의 대응기조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아베정권의 국내선거에 한일 역사문제의 이용,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음.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지게 된

시청자라면, 당연히 일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도발을 가능하도록 만든 한국의 산업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각계각층(정부, 기업, 노동계, 학계,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를 담은 후속 보도 및 분석이 뒤따를 것을 기대하였음. 그러나 지난 7월 16일자 뉴스워치 보도는 “일본 잃을 것 많다, 경제보복 부메랑” 이라는 보도에서 일본이 받을 타격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 반면 한국 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함으로써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을 생략한 채 아전인수식의 해석에 급급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근본적, 구조적 분석의 부재는 아베정권의 왜곡된 역사의식과 ‘경제의 정치화’를 비판하면서도 이를 ‘미러링(mirroring)’하는 편협한 관점의 확산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으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애국주의나 민족주의 프레임으로 확산시키면서 국민사이의 대립을 유도하는 의도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통해 드러난 “한국이 직면한 경제적 위험과 이를 초래한 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결방안”에 관한 각계의 목소리를 담은 뉴스(연속보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람.

#### ▲ 정윤식 위원장

- 한·일 경제 규제 및 갈등: 융·복합형 취재, 보도가 요청됨, “경제의 정치화”, “정치적 경제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노동문제, 원전 등, 국내 우수 일간신문 취재 보도의 경우 과거 정계 및 정치인 동향 보도보다는 경제 뉴스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음 그 결과 전문지인 경제신문과 일반 대중신문과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임,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일 경제규제 및 갈등문제는 역사( 한일 과거사), 기술문제, 무역분쟁, 경제 침체 문제, 군사문제, 외교문제(한-미-일 동맹) 및 국내 정치적 문제가 융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임, 이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가장 핫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제언으로 (1) Task Force 구성 : 정치부, 경제부 공동 및 취재 체제로 전환, (2) 해설 및 대담 프로그램도 다방면에서 전문가의 공동 출연이 요청됨 (3) 몇가지 보도 프레임 설정, 자강론/명분론(청와대, 여당, 서민층), 현실/실리론 (야당, 지식인 층) 외세와의 갈등 시 국론분열의 전통적 패러다임의 재연 일수도 있음으로 갈등 대립적 국론분열적 보도를 자제하고 양측 모두 일리있는 대안임을 주지시키면서 과거 역사에서 교훈 찾기: (예) 병자호란과 구한말 (위정척사 대 개화사상) (4) 취재 보도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대안 및 출구전략 제시 (5) 경제문제와 남북문제가 올해 최대 이슈가 될 것이며 이 이슈는 모든 국내외 문제를 블랙홀처럼 흡수할 가능성이 큼 : Task force형 합동 취재 보도의 필요
- 국론이 분열될수록 언론이 이런 시기일때 교육적인 기능을 가져야 하고 선도적으로 프레임을 잡아줘서 통합하는 집단지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 JTBC가 왜 강하냐, 손석희 사장이 안에서는 독재를 하기 때문에 강함. 대외적으로는 민주적으로 비판기능이 강하신 분이지만 뉴스의 어젠다를 본인이 선택하고 뉴스자체

의 취사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뉴스를 정해서 만들 수 있음. 손석희는 의사결정을 하며, 어젠다를 설정함, 그래서 국민들이 몰려감. 괜찮은 사람의 카리스마와 독재에 의해서 시청률이 높음. 그러나 공적인 조직 연합뉴스와 KBS는 개별 기자들의 기량이 비슷해서 컨트롤이 안되기 때문에 제3자가 볼때는 산만하기 짝이 없음. 일관성도 없고 산발적인 것만 계속 던져서 국민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며 산만하게 보여서, 안 봐서 시청률이 낮음. 가지수는 많지만 먹을 반찬이 없음. 그래서 빨리 내부에서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되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되고 공동 업무시설을 해야된다. JTBC에 다 뺀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간단해야 함. KBS도 산불문제가 왜 생겼나 김제동 프로그램을 결방해야 되는데, 결방할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연합뉴스도 계속 위기에 처하는데 중간보스들이 없어서, 부분적인 것은 괜찮은데 전체적인 것은 구멍이 나는 취약점이 있다. 강원대학교도 외부적인 것만 볼때는 민주적인데 전체적으로는 취약하다. 민주화의 역설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 7월 14일 UHD 풍경 경남 고성편에서는 갯장어, 명품바위, 상죽암, 세계 3대 공룡화석지 등 주로 자연 풍경에만 초점, 지난 달 거제 편에서는 포로수용소 등 역사적 관점과 시의성(6.25)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서 시대적 의미가 있었음, 고성편은 그 도시의 특성이 자연적 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의 의의가 반감됨. 즉 역사적 사회적 풍경이 부각되지 못함

- 일상적이고 혐오감 주는 뉴스 보도 자제, 7월 13일 뉴스 13시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40대 용의자 검거, 뉴스 가치 ( Value)가 낮으며 범인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보도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런 사례로는 경미한 교통사고 등도 있음

- 긴급하고 중요한 날씨는 제일 먼저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를 들면 휴일 소나기 보도의 경우 제목 소개시에나 실제 보도에서도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